

崔氏武人政權下の 都房의 설치와 그 向方

柳 昌 圭*

I. 머리말

2) 都房의 구조

II. 崔忠獻의 집권과 都房의 설치

III. 崔氏政權의 계승과 都房의 向方

1) 都房의 형성

IV. 맺음말

I. 머리말

高麗 武人政權 시대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4대에 걸친 崔氏家의 집권기이다. 崔氏家가 4대에 걸쳐서 집권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방면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崔氏家의 군사적 기반은 崔氏家의 정권이 武人執權期에 해당하는 것이었음을 염두에 두면, 崔氏家의 집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崔氏家의 군사적 토대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연구되어 왔으며, 崔氏家의 군사 기구에 대해서도 많은 전이 밝혀졌다.¹⁾ 이 글을 통해 검토하고자 하는 都房 역시

* 西江大學校 史學科 大學院卒

1)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논문과 저서가 참고된다.

白南雲,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 1937, pp. 278~297.

內藤雋輔, 〈高麗兵制管見〉, 《靑丘學叢》 15, 1934; 《朝鮮史研究》, 1961, pp. 181~273.

金庠基, 〈高麗武人政治機構考〉, 《東方文化交流史論巧》, 1948, pp. 207~243.

閔丙河, 〈崔氏政權의 支配機構〉, 《韓國史》 7, 1973, pp. 133~204.

旗田巍, 〈高麗의 武人崔氏의 家兵〉, 《白初洪淳和博士還曆記念史學論叢》, 1977.

旗田巍, 〈高麗武人の政權爭奪の形態と私兵の形成〉, 《古代東アジア史論文集》 上, 1978.

金塘澤, 〈武臣政權時代의 軍制〉, 《高麗軍制史》, 1984.

Shultz, E.J., 《Institutional Development in Korea under The Chosŏ House: 1196~1258》, 1976.

崔氏家の 군사적 기반의 하나로서 연구되어 왔다.²⁾

필자가 崔氏家の 都房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이다. 崔氏家の 都房이 崔氏武人政權을 유지하게 한 군사적 요소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지만, 都房의 형성 과정, 都房의 구성원과 그 구조, 그리고 都房이 崔氏政權의 계승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崔氏家の 정권을 수립한 崔忠獻이 자신의 세력을 어떻게 형성하여 가면서 都房을 설치하였는가 하는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점은 崔忠獻이 정권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세력들의 모습을 파악함으로써 드러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다음으로 都房의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崔忠獻이 설치한 都房이 崔氏家の 정권 계승 때에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이 글을 통해 崔氏家の 都房에 대해 살펴보려는 것들은 都房에 관한 단편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都房의 전체적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都房과 崔氏家の 다른 군사 집단과의 관계, 都房 구성원과 중앙 왕권과의 관계 등이 선명히 드러나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깊이 천착하지 못하는 것은 필자의 한계이다. 이 글을 통해 都房에 관한 일면이나 마 밝혀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Ⅱ. 崔忠獻의 집권과 都房의 설치

1) 都房의 형성

明宗 26년(1196) 李義旼을 제거하고 집권한 崔忠獻은 神宗 3년(1200)에 都房을 설치하였다.³⁾ 崔忠獻이 집권한 이후 5년이 지나서 都房을 조

2) 都房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內藤雋輔, 앞의 논문, 金庠基, 앞의 논문, 閔丙河, 앞의 논문, 旗田巍, 〈高麗의 武人崔氏の家兵〉, 金塘澤, 앞의 논문.

3) 《高麗史》129 崔忠獻傳을 참고하기 바람.

직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그의 집권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都房의 조직이 갑자기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崔忠獻이 5년 동안 집권하면서 닦아 놓은 기반 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崔忠獻이 무인 집권자의 일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그의 아우 崔忠粹, 그리고 朴晉材, 盧碩崇 등과 함께 李義政을 제거하면서이다.⁴⁾ 李義政을 제거한 이후 崔忠獻 등은 중앙에 남아 있는 李義政의 세력을 제거하였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다음의 사료를 통해 엿볼 수 있다.

A① 忠獻兄弟馳馬 露刃 至十字街 見監行領將軍白存儒 告以實 存儒樂從之 召集軍卒(中略) 仍請與大將軍李景儒·崔文清等討餘黨 遂與之坐市街 召募壯士響應 於是諸衛將卒亦皆畢集(高麗史節要 13 明宗 26年 4月)

② 時吉仁在壽昌宮 聞變急 即與將軍俞光·朴公襲等 擅出武庫兵仗 以授禁軍及宦官·奴隸凡千餘人 諭曰 今忠獻作亂 多殺無辜 禍將及汝 宜各戮力 以立大功(中略) 忠獻等率衆圍之(同上)

崔忠獻 등이 李義政을 살해한 뒤 서울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군사적 도움을 청한 것은 監行領將軍 白存儒에게이다.⁵⁾ 白存儒가 불러 모은 군사적 도움을 받은 崔忠獻 등은 李義政의 남은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 大將軍 李景儒·崔文清 등과 함께 시가에 앉아 壯士를 불러 모았다 한다(A①). 기록상으로 보아서는 崔忠獻 일파가 A①에 나타나는 壯士를 불러 모으기 이전에 자신들의 어떤 다른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A①에 보이는 壯士는 崔忠獻 등이 직접 불러 모은 최초의 무사들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A①의 壯士가 단순히 무력을 소유한 武士

4) 자세한 내용은 《高麗史》129 崔忠獻傳을 참고하라.

5) 監行領將軍 白存儒가 거느린 군사에 대하여 旗田巍는 〈高麗의 武人 崔氏의 家兵〉, p.2에서 監行領의 부대에 속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비해 金塘澤은 앞의 논문, p.274에서 監行領은 監門衛를 지칭한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白存儒가 실제로 거느린 군사가 적었기에 새로이 將士를 모집하였다고 보고 있다. 監行領에 대해서 필자로서는 그 용례를 아직 찾지 못하여 확실히 어떠한 부대나 군대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白存儒가 불러모은 군사는 중앙군이었다고 생각된다.

集團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⁶⁾ 崔忠獻이 大將軍 李景儒·崔文清과 함께 壯士를 불러모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壯士는 李景儒와 崔文清의 권위에 의해 崔忠獻 등에게 가담할 수 있었던 군인으로 생각된다.⁷⁾ 또한 이들 壯士는 A①에서 壯士들이 응함으로 인해 여러 衛의 군사가 崔忠獻 등에게 가담했다는 것으로 보아 여러 衛에 속한 군사와는 구별되는 군인이며, 그들의 항방에 따라 여러 衛의 군사가 태도를 결정할 만큼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⁸⁾

崔忠獻 등은 A①에 보이는 壯士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직속 군사를 편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A②의 吉仁 등이 崔忠獻이 난을 일으켰다는 것을 듣고 崔忠獻을 없애려고 하자 崔忠獻등이 ‘衆’을 이끌고 그들을 공격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A②에서 崔忠獻 등이 거느린 무리(衆)는 A①에서 보이는 壯士들을 일컫는 것이라고 보아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崔忠獻 일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거느리게 된 군사들은 李義旼 세력을 제거한 이후 崔忠獻 일파의 정권이 공고해져 가면서 더욱 정비되었던 것 같다.

A③ 忠獻兄弟與(朴)晋材及其族金躍珍·盧碩崇等 勦兵市街爲中軍 分諸衛兵爲左右前後軍 屯于四街 又遣將卒閉諸城門 召杜景升 流于紫燕島(高麗史節要 13 明宗 27 月 9 日)

- 6) 鄭杜熙는 崔忠獻 등이 불러모은 壯士가 국가의 정규군에 속해 있지 않는 武士集團이라고 보았다(〈高麗 武臣執權期の 武士集團〉, 《韓國學報》 8, 1977, p. 84). 그러나 崔忠獻이 불러모은 壯士는 將士, 武士와 마찬가지로의 존재로서 중앙의 정규군이 아니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 氏가 중앙의 정규군이 아닌 武士集團으로 생각한 將士의 경우 일반 군인을 가르키는 것이 명백한 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인용한 사료 A①에서 白存儒가 조집했다는 군졸이 《高麗史》 129 崔忠獻傳에는 將士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將士·壯士라고 표현된 기록으로 그들이 단순한 武士集團에 지나지 않으며, 정규의 중앙군이 아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7) 崔忠獻이 직접 壯士를 불러 모으지 못하고 李景儒와 崔文清과 함께 壯士를 불러모은 것은 당시 崔忠獻의 위치가 壯士들에게 호응을 얻을 만큼 높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한다.
- 8) 壯士가 여러 衛의 군사와는 다른 존재였던 것으로 보아 2軍의 군사가 아니었나 짐작된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군사였는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A③은 崔忠獻 등이 李義旼의 세력을 제거하고 집권한지 1년이 지난 후 杜景升의 세력을 축출할 당시의 崔忠獻 측근의 군사적 상황을 말해 주고 있다. A③에 의하면 崔忠獻 형제들 비롯한 朴晉材·金躍珍·盧碩崇 등이 자신들의 군사를 中軍으로 하고, 여러 衛의 군사로 하여 左·右·前·後의 4軍이 되도록 하여 5軍을 편성하였다 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崔忠獻 일파가 거느린 군사가 여러 衛의 군사와 함께 전투 체제를 갖추어 있을 만큼 수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지휘 체계가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崔忠獻 일파가 거느린 군사력은 崔忠獻이 그의 동생 崔忠粹와 대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A④ (明宗 27年 10月)忠獻泣謂其衆曰 忠粹欲以女配東宮者 無他 欲以圖不軌也 明朝 欲掃吾徒 事已急矣 (中略) 忠獻即召晉材及躍珍·碩崇 告之 晉材曰 (中略) 我當與躍珍·碩崇等 率衆助之 忠獻大悅 夜三鼓 忠獻率兵千餘 由高達坂 至廣化門 (中略) 又發武庫兵仗 授禁軍以備 諸衛將軍亦率兵爭赴 忠粹聞之 懼謂其衆曰 (中略) 忠粹許之 黎明 率兵千餘人 屯十字街 (高麗史 129 崔忠獻傳)

A④에 의하면 崔忠獻·崔忠粹·朴晉材·金躍珍·盧碩崇 등이 모두 자기 ‘衆’이라고 표현된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것이다. 崔忠獻과 崔忠粹가 거느린 군사의 수는 자기 1,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崔忠粹의 경우 1,000여명에 달하는 군사를 몇 명의 將軍이 나누어 지휘하였으며, 崔忠粹가 최고 우두머리로서 이들을 모두 관할하였던 것 같다.⁹⁾ 崔忠獻도 崔忠粹와 비슷한 형태로 그의 군사들을 지휘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제까지 崔忠獻이 집권하기 시작한 무렵의 崔忠獻 일파의 군사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았다. 崔忠獻 일파의 군사들은 壯士의 집결된 형태에서 시작하여 일정한 전투 능력과 지휘 체제를 갖추어 나아갔지만 明宗 27년까지도 단순히 ‘衆’이라고 표현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明宗을 축출하고 神宗을 즉위시킨 崔忠獻 일파는 그들이 거느린 군사와 그들과의 관계를 어

9) 崔忠粹의 측근으로 將軍 吳淑庇·俊存深·朴挺夫 등이 있었는데, 이들이 崔忠粹의 무리(衆)를 이끌고 崔忠獻 등과 싸웠다(《高麗史》129 崔忠獻傳).

는 정도 정비하여 그들의 군사를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켜 나아갔던 것 같다. 이 점은 다음의 사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A⑤ (神宗 2年 8月)(金)俊瑠不恤民事 募勇士 恒事遊牧 晉材門客無慮數百 有神騎指諭李勣中者最親昵 勣中密召俊瑠 欲作亂 (中略) 忠獻遣門卒 捕俊瑠斬之 (高麗史 129 崔忠獻傳)

A⑤에 의하면 神宗 2년(1199)에 朴晉材의 경우 수백 명에 이르는 門客을 거느리고 있었다 한다. 수백 명에 달하는 朴晉材의 門客은 일시에 갑자기 구성된 것이 아님은 말할 나위없다. A⑤에 보이는 朴晉材의 門客은 A④에서 그가 거느렸던 무리(衆)라고 표현된 군사가 중심이 되어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A④에서 朴晉材가 거느린 군사는 A③에서 崔忠獻 등이 거느린 군사와 함께 中軍을 이루었던 군사라고 하겠다. 朴晉材가 崔忠獻 집권 초에 거느렸던 그의 군사들을 門客集團으로 형성하였을 때 崔忠獻은 그의 군사를 어떻게 하였을까. 崔忠獻 역시 朴晉材와 마찬가지로 그의 집권 과정에 참여했던 그의 군사를 門客集團으로 형성시켰을 것이다. A⑤에 崔忠獻이 門卒을 파견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서 門卒이란 門客에 포함되는 일반 병사를 일컫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崔忠獻이 朴晉材 처럼 거느리고 있었을 門客도 역시 A④에서 보이는 崔忠獻이 거느리던 ‘衆’이 중심이 되어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A④에 崔忠獻이 거느린 ‘衆’은 A①에서 崔忠獻이 모집한 壯士가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앞에서 말한 바 있다. 따라서 朴晉材와 崔忠獻은 壯士(衆)를 중심으로 그들의 門客集團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崔忠獻과 朴晉材가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한 그의 군사들을 門客集團으로 형성하였던 것은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崔忠獻과 朴晉材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의 뜻에 의해 그들의 정권 획득 과정에 참여한 군사들을 계속 자신들의 측근으로 두면서 세력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¹⁰⁾ 이에

10) 崔忠獻이나 朴晉材의 경우 그들의 군사를 계속 측근으로 두려고 노력했을 것

비해 崔忠獻과 朴晉材에게 가담하여 그들의 정권 장악을 가능케 한 군사들은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길 원했으며, 그 어떤 보상을 바랐음에 틀림없을 것이다.¹¹⁾ 이러한 입장으로 말미암아 崔忠獻과 朴晉材는 그들의 군사들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를 원했으며, 그들의 군사들 역시 바라던 바였을 것이다. 崔忠獻과 朴晉材 그리고 그들의 군사들 양편이 서로 일치할 수 있는 관계는 상·하의 절대적 주종(예속)관계보다는 자율적인 상·하의 복종 관계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서로의 이해 관계를 결충하기 위해 門客集團의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¹²⁾

門客集團을 형성하여 그들을 거느린 崔忠獻은 神宗 3년(1200)에 都房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이 때의 都房 설치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B ① 忠獻自知縱恣 恐其變生不測 大小文武官吏·閑良之士至於軍卒強有力者 並皆招致 分爲六番 更日直宿其家 號都房 及其出入 台番擁衛 如赴戰鬪焉 (高麗史節要 14 神宗 3年 12月)

B ①에 보이는 都房은 崔忠獻 자신의 군사 집단으로서 그의 신변 보호,

이라는 점은 崔忠粹의 경우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崔忠粹는 그의 형 崔忠獻과 대결하면서 처음에는 스스로 그만 두려하였으나, 그의 측근의 장군들이 崔忠獻과 대결하자고 하여 그에 따랐다(《高麗史》129 崔忠獻傳). 이러한 사실은 崔忠粹가 그의 측근의 군사의 뜻을 함부로 막을 수 없었으며, 崔忠粹 자신도 그의 군사의 뜻을 따름으로써 계속하여 그의 군사를 자신의 측근으로 남게 하며 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崔忠粹와 비슷한 형태로 측근의 군사를 형성했던 崔忠獻이나 朴晉材에게 있어서도 그같은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1) 그러한 상황은 다음의 사료를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다.

(朴)晉材門客之多幾於忠獻 而率皆勇悍 得官者少 晉材怏怏不平(高麗史節要 14 熙宗 3年 5月)

위의 기록에 의하면 朴晉材의 門客 가운데는 관직을 얻은 사람이 적어 朴晉材가 불평을 하였다 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해 門客 자신들도 관직을 얻지 못한 때에 대하여 불평하였을 것이며, 朴晉材도 그것에 대해 염려했음을 알 수 있다.

12) 門客의 내적 관계에 대해서는 金鍾國, 〈高麗武臣政權の特質に關する一考察〉(《朝鮮學報》17, 1960), pp. 60~61, 그리고 鄭杜熙, 앞의 논문, pp. 88~91을 참고하라.

崔忠獻家の 숙위 등을 담당하였다.¹³⁾ 이러한 사실은 B①에서 崔忠獻이 들어오고 나갈 때에 都房이 호위하였으며, 그 호위함이 마치 싸움터에 나가는 것과 같았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崔忠獻이 설치한 都房이 종래에 그가 거느렸던 것으로 보이는 門客集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이 의문스럽다. 다음의 사료에 먼저 주목하여 보자.

B② 冊崔忠獻爲晉康侯 立府曰興寧 置僚屬 以興德宮屬之 忠獻迎命于男山第(中略)

忠獻出入宮禁 便服張蓋 侍從門客殆三千餘人 (高麗史節要 14 熙宗 2年 3月)

③ 其(崔忠獻)黨指諫申宣胄·奇允偉等 與僧徒相格鬪 忠獻都房六番皆集宮城外 不知忠獻生死 有茶捧盧永儀者 初隨忠獻入內 登屋大呼曰 吾公無恙 於是都房爭入救之(高麗史節要 14 熙宗 7年 12月)

B②는 崔忠獻이 晉康侯로 책봉되고 그에 따라 府를 세운 사실을 말해주는 기록이다. 그런데 B②에 의하면 崔忠獻이 侯에 봉해진 후 궁중을 출입할 때에 그의 門客 3,000명 정도가 시위하였다 한다. B②에 보이는 門客은 崔忠獻이 출입할 때에 시위한 都房(B①)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B②에 보이는 門客은 都房의 구성원이었다고 생각하여 크게 어긋나지 않을 줄 안다. 또한 그같은 사실은 B③의 사료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B③은 崔忠獻을 제거하려는 사건이 궁궐 안에서 발생하였을 때 崔忠獻 측근의 활동을 보여 준다. B③에 의하여 崔忠獻이 궁궐에 들어 갔을 때 都房 6番의 구성원이 모두 崔忠獻을 시위하고 가서 궁성 밖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都房 6番이 B②에 보이는 시중 門客과 그 기본적인 역할에 있어서 이렇다 할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자 사이의 기본적인 성격도 같은 것이었다고 하겠다.¹⁴⁾

13) 이와 관련하여 金塘澤, 앞의 논문, p. 290을 참고하라.

14) 旗田巍는 門客과 都房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崔氏家の 家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하였다(〈高麗의 武人 崔氏의 家兵〉, p. 5). 金塘澤은 都房의 구성원은 門客 또는 家兵이라고 불리워졌다고 하며, 門客과 都房을 거의 동일시 하였다(앞의 논문 p. 286).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崔忠獻이 神宗 3년에 都房을 설치한 것은 門客集團의 수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門客集團을 조직적인 체계 속에 편제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門客集團의 경우 그들을 일률적인 체계 아래 조직화시켜 지휘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반면에, 그들을 都房과 같은 조직 안에 편성하여 지휘함으로써 더욱 조직화되고 정비된 상태에서 그들을 거느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都房의 성립과정을 살펴보았다. 崔忠獻은 집권 과정에서 그에게 군사력을 제공한 壯士(衆)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門客集團을 형성하였으며, 이후 門客의 수적 증대를 노림과 동시에 이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시키기 위하여 都房을 설치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都房의 構造

崔忠獻이 새로이 조직화시킨 都房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그 구성원의 존재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崔忠獻은 都房을 설치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대소 문·무관리와 閑良, 軍卒 가운데서 힘있는 사람을 불러모았다 한다(B①).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都房의 구성원이 일시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崔忠獻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거느렸던 군사(壯士)들이 주축이 되어 형성한 門客集團이 都房의 구성원으로 편입되었던 것이다.¹⁵⁾ 물론 都房의 구성원으로 종래의 門客 외에 다른 사람들도 새로이 편입되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都房의 구성원의 한 계층을 이룬 軍卒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軍卒은 장교층 이하에 속하는 일반 군사라고 생각된다. 일반 군사로서 都房에 속했던 사람들은 崔忠獻의 집권에 협력한 군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崔忠獻에 협력한 일반 군인으로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부류는 壯士들이다. 이들은 崔忠獻의 정권이 안정되어 잡에 따라 崔

15) 旗田鎭는 崔忠獻이 구메타 성공시에 거느렸던 壯士가 崔氏家の 家兵으로 흡수되었다고 하고 있다(『高麗の武人崔氏の家兵』, pp. 3~20).

忠獻으로부터 일정한 댓가를 받아 武官으로 진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부는 武官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계속 일반 군인으로 남아 있으면서 都房의 구성원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 崔忠獻이 집권하는 데에 있어서 그의 직접적인 측근의 군사가 아니었으면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군사로 여러 衛의 중앙군을 뽑을 수 있다. 여러 衛의 중앙군은 崔忠獻이 李義旼의 일당을 제거할 때나, 崔忠粹를 제거할 당시에 崔忠獻에게 상당한 군사적 도움을 주었다(A②·④). 따라서 崔忠獻이 都房을 설치하면서 새로이 그 구성원으로 불러들인 군사는 여러 衛에 속한 중앙군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都房에 속한 壯士라 표현된 군인과 여러 衛의 군인은 국가의 군사로 계속 활동하면서 崔忠獻과 사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그들은 都房의 하층부를 구성하면서 실질적인 군사적 활동에 충당되었을 것이다.

한편 都房의 구성원으로 포함된 閑良은 그 신분이 분명하지 않다. 특별한 관직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閑良은 일반 군인보다는 상위의 신분으로서 都房에 소속하여 하급 將校층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든지,¹⁶⁾ 일반 군인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 관직을 갖고 있지 못했던 閑良은 都房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崔忠獻에게 충성을 하는 한편,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았다고 하겠다.

都房 내에서 하위층을 구성한 일반 군인이나 閑良은 都房에 속하지 않은 다른 일반 군인이나 閑良보다도 승진할 기회나 관직에 나아갈 기회를 더욱 많이 가졌다.

C 崔忠獻會賓客 設重陽宴 使都房有力者手搏 勝者即授校尉·隊正 以賞之 (高麗史 節要 14 熙宗 5年 9月)

C의 기록에서 보여지듯이 都房의 구성원에게 校尉나 隊正을 상으로 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崔忠獻은 다른 누구의

16) 旗田巍, 〈高麗의 武人崔氏의 家兵〉, p. 8을 참조하라.

논을 의식하지 않고 都房의 구성원에게 하위 장교직을 주었던 것이다. 그만큼 崔忠獻은 都房의 구성원에게 혜택을 주는데 꺼려하지 않았으며, 그 같은 혜택을 빈번하게 주었던 것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崔忠獻은 都房의 구성원들에게 그와 같은 보상을 하여 줌으로써 都房의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으며, 都房의 구성원들은 崔忠獻에게 더욱 충성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C에서와 같은 혜택은 都房의 구성원 가운데서도 일반 군사나 閑良들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중앙군의 하위 장교직을 맡게 된 都房의 구성원은 중앙군의 장교로서 활동하였으며, 都房 내에서도 하위 장교층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都房의 구성원 가운데 상위층이라 할 수 있는 문·무관리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崔忠獻 집권 당시에 都房이 주로 군사적 임무를 수행했으면서도 그 구성원으로 문인 관리까지 포함시킨 것은 門客集團 전체를 都房의 조직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즉 崔忠獻의 집권기에는 문인 門客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인들도 都房 안에 흡수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 따라서 都房의 조직 안에서 문인 관리들의 역할은 그렇게 커다란 것이 아니고, 다만 都房에 편입되어 崔忠獻의 측근으로 활동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겨진다.¹⁸⁾

都房의 군사적 역할에 비추어 보아 都房의 상층부로서 都房의 구성원을 지휘한 사람은 무인 관리였을 것이다. 이들은 공적으로는 중앙군의 상층부로서 존재하였으며, 都房의 상층부로서 都房에 소속한 군사들을 사적으로 지휘하였다고 하겠다.

D ① 益州人 父大將軍(李)松爲崔怡門客 (高麗史 123 李汾禧傳)

- 17) 鄭杜熙는 門客의 구성원은 주로 武士들이었으며, 崔怡 매에 이르러서 門客 내에 文士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앞의 논문, p. 85).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崔忠獻이 설치한 都房 안에 편입된 문인들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18) 문인 관리로서 都房의 구성원이 되었던 인물들은 崔忠獻을 시위하는 임무는 담당했겠지만, 군사적인 역할보다도 일반 행정이나 문인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怡使門客將軍朴承實等 取其栢樹植之 (高麗史 129 崔怡傳)

D①과 ②의 사료는 崔怡의 門客에 관한 것이지만 都房의 상층부에 있던 무인 관리에 대한 일면을 엿보게 해 준다. 李松과 朴承實은 중앙의 고위 무인으로서 崔怡의 門客이었다. 이들은 중앙군의 大將軍, 將軍 직에 있었던 만큼 중앙군의 통솔자로서의 어느 정도 책임을 완수했을 것이다. 또한 D②에서 朴承實이 崔怡의 명에 의하여 사적인 임무도 맡아서 처리하고 있듯이 崔氏家의 사적인 일에도 그들의 책임을 다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都房의 무인 관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崔氏家의 입장에서 볼 때 都房의 상층부 인물들이 중앙의 고위 관직을 가질수록 중앙에서 崔氏家의 세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중앙군의 상위층에 都房 구성원이 자리함으로써 중앙군 가운데 都房에 속하지 않은 군사를 간접적으로 崔氏家의 측근에 끌어들이 수도 있었을 것이다. 崔氏家의 都房에 속한 무인 관리들은 崔氏家에 충성함으로써 나름대로 승진의 기회와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崔氏家와 그 都房의 무인 관리들은 서로의 이익이 일치하여 결합되어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崔忠獻이 사적으로 설치한 都房에 속한 사람들은 閑良을 제외하고는 중앙군이거나 중앙 관직의 담당자였다고 할 수 있다.¹⁹⁾ 그리고 중앙군이나 중앙의 관리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都房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중앙에 진출할 기회를 많이 가졌다. 都房의 소속원이면서 중앙의 관직을 갖고 있거나 중앙군에 속했던 사람들은 사적으로 崔忠獻의 都房에 남아 있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계속 중앙 정부의 직책을 수행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崔忠獻이 都房을 6番으로 나누고 하루씩 돌아가면서 番을 서게 한 것도,²⁰⁾ 그들이 중앙의 직책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

19) 金塘澤은 都房의 구성원이 官軍과 다를 바 없는 군인이라고 보았다(앞의 논문, p. 289).

20) 金庠基는 都房 6番이란 都房이 6개의 부대로 나뉘어 있었으며, 6개일을 주

는 배려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된다. 崔忠獻이 비록 집권하고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던 都房 소속원에게 완전히 그의 사적인 기구인 都房을 통해서만 활동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중앙에서 공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것은 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崔忠獻 자신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崔忠獻은 都房의 구성원 가운데 중앙 정부와 공적으로 관계를 맺은 다수의 사람들이 都房을 통한 결속력과 崔忠獻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한 중앙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崔忠獻이 설치한 都房의 구성원이 대체로 중앙 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때로 都房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다음의 사료에 의해 짐작해볼 수 있다.

E 時遣將禦契丹兵 驍勇者皆忠獻父子門客 官軍羸弱不可用 忠獻閱家兵(中略) 門客有請從官軍者 即流遠島(高麗史 129 崔忠獻傳)

E에서 보여지는 崔忠獻 부자의 門客은 대개 군인들로서 상층부의 무인으로부터 하층부의 일반군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E에서 언급된 崔忠獻의 門客은 都房의 구성원이었다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 같다.²¹⁾ 그런데 E를 통하여 崔忠獻의 門客 즉 都房 소속의 군사가 중군을 희망하였다는 것을 암시받을 수 있다. 그들이 중군을 희망한 것은 자발적인 의사였으며, 그들이 그러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행동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²²⁾ 그들이 스스로 중군을 희망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그 이유는 崔忠獻의 門客이 崔忠獻에게 충성함으로써 관직상승 등의 기회가 있었지만, 중군하여 군공을 세움으로써 관직을 상승시킬 기회

기로 자 翫이 순차로 매일 遞番하였던 것이라고 하고 있다(앞의 논문, pp. 228~230).

21) 본문의 崔怡의 門客은 당시 都房에 소속해 있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22) 이와 관련하여 洪承基, <崔氏武人政權과 崔氏家の 家奴>《麗壇學報》53·54 合 1982; 《高麗貴族社會와 奴婢》, 1983), p. 290 을 참고하라.

를 갖고자 했던 데에 있었지 않나 추측된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 중군을 희망한 경우는 都房의 구성원이었지만 崔忠獻으로부터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일반 군인이나 하급 장교에게 주로 해당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중군을 희망한 다른 이유는 都房 소속의 군사가 사적으로는 崔忠獻에게 충성하고 있었지만, 공적으로는 중앙군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에 자신들이 중군해야 할 의무감을 느꼈거나, 아니면 崔忠獻 측근이 아닌 다른 중앙군의 책임자로부터 압력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崔忠獻이 그의 門客 가운데 중군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섬으로 유배를 보낼 만큼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崔忠獻의 門客이 都房을 통해서 결속되어 있었지만, 그의 門客 가운데 다수가 중군함으로써 都房의 결속력이 깨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군과 관계가 있는 崔忠獻의 門客이 중군하게 되면 그에 대한 충성심이 다른 방향으로 쏠리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종래의 사적인 유대 관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崔忠獻이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그의 門客의 다수가 중군을 희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하겠다. 이 점은 都房에 속한 崔忠獻의 門客 가운데 많은 수가 중앙군과의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都房에 소속한 군사들은 崔忠獻과 사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지만, 중앙의 임무를 동시에 맡고 있었기 때문에 사적인 관계를 방치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적인 활동을 중요시 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都房의 구성원의 성격과 그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하겠다. 崔忠獻은 都房이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의 門客들을 都房을 통하여 조직화시키고 지휘하여 나감으로써 중앙 정계에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Ⅲ. 崔氏政權의 계승과 都房의 향방

지금까지 우리는 崔忠獻이 門客集團을 조직화하여 都房을 설치하였으며, 都房의 구성원이 중앙 정부의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였다는 점을 알아보았다. 이 장에서는 崔氏政權이 계승될 때에 都房의 구성원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崔忠獻이 崔怡에게 정권을 계승할 무렵의 상황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都房의 움직임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F① 崔忠獻有疾(中略)因密謂子瑀曰 吾病將不起 恐有蕭牆之患 汝不復來 瑀遣其壻將軍金若先侍病 稱疾不就(中略)忠獻即召(崔)俊文 畜於家 奴使之 遂補除正 日見寵任 凡請闕者皆附 累遷至大將軍 又於忠獻家側 大營私第 交結勇士 與上將軍池允深·將軍柳松節·郎將金德明爲忠獻羽翼 及忠獻疾病 四人謀曰 公若棄世 吾輩必爲瑀壻粉 季子珣諳氣過人 可屬大事 因譖瑀疾 欲除之 遣人報瑀曰 令公病篤急 欲見公 如是者再三(高麗史節要 15 高宗 6年 9月)

길게 인용한 F①의 기록은 崔怡(瑀)가 정권을 계승할 무렵 그에 반대한 세력의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 F①에 보이는 崔俊文은 崔怡의 정권 계승에 반대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崔俊文은 貢生의 신분으로 崔忠獻에게 발탁되어 大將軍에 이른 인물로서 崔忠獻의 門客이 아니었나 생각된다.²³⁾ 그런데 崔俊文은 F①에 의하면 崔忠獻의 심복이면서도 나름대로 자신의 군사를 거느렸던 것을 알 수 있다. 崔俊文이 사제를 짓고 결탁하였던 勇士가 전부 都房의 구성원이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都房에 소속해 있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崔俊文과 함께 崔怡의 襲權에 반대한 F①의 上將軍 池允深·將軍 柳松節·郎將 金德明도 崔忠獻의 門客으로 都房에 소속해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崔忠獻의 측근으로서 崔怡의 襲權에 반대한 인물들은 都房의

23) 崔俊文이 崔忠獻에게 발탁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高麗史》129 崔怡傳을 참조하라.

대표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都房에 소속하였을 것으로 믿어지는 崔俊文 등이 崔怡의 정권 계승에 반대하고 崔珣을 후계자로 등장시키려 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자. F①의 사료에 의하면 그 이유는 崔怡가 집권하게 되면 그들이 살아 남지 못할 가능성이 컸던 반면에, 崔珣은 용력이 뛰어나 큰 일을 맡길 만한 인물이기 때문이었다 한다. F①을 통하여 崔俊文 등과 崔怡의 관계가 평소부터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그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나, 崔俊文 등과 崔怡의 세력은 다른 구성체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崔俊文 등은 崔忠獻의 힘에 의해 관직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崔忠獻의 門客으로 都房에 소속해 있었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崔怡는 崔忠獻이 집권하고 있을 당시에 이미 자신의 門客을 거느리고 있었다.²⁴⁾ 崔怡의 門客은 崔忠獻의 晉陽府가 아니라 崔怡의 사제에서 활동하였을 것이다.²⁵⁾ 따라서 崔怡의 門客은 崔忠獻이 집권하고 있을 당시에 都房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都房을 통해서 결집된 崔忠獻의 門客은 崔怡의 門客과는 불편한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더우기 崔怡가 집권하게 된다면 그의 門客이 都房을 장악하게 되므로 崔俊文 등은 자신의 세력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던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崔俊文 등이 崔忠獻의 후계자로 지목한 崔珣은 崔怡와 같은 독자적인 門客集團을 갖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다. 崔珣은 崔俊文과 비슷한 지위에 있었으며, 비슷한 정도의 군사를 거느렸다. 그러한 사실은 다음의 사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진다.

F② 命賜將軍崔珣·申宣甫·奇允偉·朴世通·崔俊文等五領軍 米人一碩·布一匹 崔忠獻集諸軍 賜之 允偉軍無故呼噪 忠獻遣令停賜 (高麗史節要 15 高宗 4年 5月)

24) 《高麗史》129 崔忠獻傳 참조.

25) 崔怡가 崔忠獻이 병들자 그의 집으로 몰아가 나오지 않았던 것도 자신의 門客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짐작된다.

F②를 보면 崔珣은 將軍으로서 1 領軍(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이 때에 崔俊文 등과 함께 행동하였던 것이다. 崔珣이 유배당할 때에 申宜胄도 함께 유배당하는 것으로 보아,²⁶⁾ F②에 보이는 崔珣·申宜胄·崔俊文 등이 崔忠獻 정권 말기에 이미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동일한 세력이 아니었나 짐작할 수 있다. 즉 申宜胄나 崔珣도 崔俊文과 마찬가지로 都房에 소속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F②에서 崔珣·崔俊文·申宜胄 등이 거느린 군사 가운데는 상당수가 중앙군이면서 崔忠獻의 都房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崔俊文 등이 崔珣을 崔忠獻의 후계자로 등장시키려 한 것은 崔珣의 군사력 역시 都房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崔俊文 등은 동일한 기반 위에 성장한 崔珣을 지지함으로써 계속하여 그들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崔怡가 그의 父 崔忠獻의 都房에 기반을 두고 성장한 崔俊文 등의 반대를 받았지만 그 자신이 襲權한 이후에도 都房을 없애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崔怡 자신이 거느린 門客에 대해서도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崔怡는 집권 이후에 馬別抄·夜別抄·書房 등을 조직하여 자신이 거느린 군사력의 핵심을 都房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한편,²⁷⁾ 문인 門客을 都房이 아닌 書房에 따로 편성시켰던 것이다. 이로 인해 都房 자체의 崔氏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게 되었다.

G 瑀營私第 皆役都房及四領軍 船輸舊京材木 又取松栢多植家園 (高麗史節要 16 高宗 21年 10月)

G에 의하여 崔怡가 都房의 구성원과 都房에 속하지 않은 중앙군으로 하

26) 《高麗史節要》15 高宗 7年 1月 條 참조.

27) 이와 관련하여 金庠基, 앞의 논문, pp.233~238, 그리고 金塘澤, 앞의 논문 p.298을 참조하라. 그런데 金塘澤은 崔怡 대에 이르러서 都房의 조직이 더욱 비대해졌다고 하고 있다(앞의 논문, p.298). 필자의 생각으로는 夜別抄등이 조직됨으로 인해서 都房의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이 아닐까 한다.

여금 사제를 짓는 데에 일을 시켰으며, 수록을 옮기는 등의 잡역을 담당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G에서 단순 노동에 참여한 都房의 구성원은 都房 내에서도 하위층에 속하는 일반 군사였겠지만, 都房의 구성원이 崔忠獻 때와 같이 시위나 군사적인 역할을 전담하였다면 이처럼 단순한 역사에 동원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都房의 구성원으로 하여 단순한 잡역을 담당하게 한 것은 崔怡 당시에 都房이 崔氏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해 준다고 하겠다.

이제 崔怡가 崔沆에게 정권을 물려줄 당시의 상황을 통해 都房의 향방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다음의 사료를 통하여 崔沆이 襲權할 당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H① 怡分與家兵五百餘人 及怡病 沆領兵入府 聞病殆 即還其家 怡死 知吏部事・上將軍周肅領夜別抄及內外都房 欲復政于王 猶豫未決 殿前李公柱・崔良伯・金俊等七十餘人 歸于沆 肅亦附焉 合番擁衛 (高麗史 129 崔沆傳)

② 崔沆襲甲領兵 自長峯宅馳馬 移于見子山晉陽府 不入正門 由東偏小戶入 蓋畏人也 (高麗史節要 16 高宗 37 年 2 月)

③ 沆徙見子山第 不使肅知 肅始異之 (高麗史節要 16 高宗 37 年 3 月)

H①에 의하면 崔沆은 그의 父 崔怡로부터 家兵 500여명을 물려받았다 한다.²⁸⁾ 500여명에 이르는 家兵을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崔沆은 崔怡의 병이 위독하게 되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다(H①). 이같은 상황은 崔怡가 襲權할 당시와 비슷한 점이 있다. 崔沆 역시 崔怡가 襲權할 무렵 崔忠獻의 세력을 견제하여 자신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崔怡가 거처하고 있던 晉陽府를 중심으로 하여 존재한 崔怡의 세력 아

28) 洪承基는 본문의 家兵은 崔氏家の 家奴들을 핵심적인 요소로 해서 이루어진 崔氏家の 핵심적인 사병이라고 시사하고 있다(앞의 논문, p. 291). 그리고 또한 氏는 家兵의 용례가 崔氏家の 가노들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된, 都房과는 구별되는 사병 조직을 뜻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느 것은 崔氏家の 사병 조직 전부를 포괄해서 지칭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앞의 논문, p. 292). 필자가 이 글에서 사용하는 家兵은 崔氏家の 家奴가 중심이 되어 구성한 사병 조직을 뜻하는 것이다.

태 있던 군사를 경계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여겨진다. 崔沆이 두려워 한 崔怡 측근의 군사는 H①에서 보이듯이 周肅이 거느린 夜別抄와 内外都房이었다고 생각된다. H②와 ③에 의하면 崔沆은 晉陽府로 거처를 옮기면서 周肅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했음을 알 수 있다. 崔沆이 집권하는 데에 있어서 반대 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夜別抄와 都房을 거느린 周肅을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H①에서 알 수 있듯이 周肅은 崔氏家の 家奴 출신인 李公柱·崔良伯·金俊 등이 崔沆을 쫓아 결국 자신도 崔沆의 襲權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崔氏家の 家奴 출신으로 구성된 家兵 집단의 세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²⁹⁾ 그리고 崔忠獻 당시에는 崔氏家の 군사적인 집단으로서 강력한 힘을 가졌던 都房이 崔怡 집권 이후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崔怡 집권 동안 都房은 内·外都房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을 H①에 의해 알 수 있다.³⁰⁾ 崔怡 당시에 都房이 内·外로 구분되어 있어 외면적으로는 수적 증가와 함께 그 세력의 증대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崔沆의 襲權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崔氏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 든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런 점은 周肅이 夜別抄와 内·外都房을 거느리고 왕정을 복구하려 했다는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内·外都房의 구성원이 崔氏家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이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周肅이 그들을 거느리고 왕정을 복구하려고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³¹⁾ 内·外都房의 구성원은 崔怡 집권 이후 崔氏家와의 강력한 유대 관계가 느슨해졌다고 볼 수 있다.

李公柱·崔良伯·金俊 등 家奴 출신 세력의 결정적인 도움에 힘입어 집권하게 된 崔沆은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한 崔誼가 崔氏家の 측근에 있는

29) 이와 관련하여 洪承基, 앞의 논문, pp. 286~292를 참고하라.

30) 金庠基는 崔怡가 집권하여 종래 그의 家兵으로 内都房을 조직하고, 崔忠獻의 都房으로 外都房이라 한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앞의 논문, p. 231).

31) 周肅이 崔沆의 襲權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 金塘澤, 앞의 논문, pp. 304~306을 참조하라.

군사력에 의해 반대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I 及沆病 召(宣)仁烈·(柳)能 執手曰 君等保護此子 吾死無恨矣 沆死 殿前崔良伯秘不發喪 按劍叱侍婢勿哭 與仁烈謀 以抗言傳于門客大將軍崔瑛·蔡楨及能等 會夜別抄·神義軍·書房三番·都房三十六番 擁衛 乃發喪(高麗史 129 崔誼傳)

I를 통하여 崔沆이 죽기 전에 崔誼에게 정권을 물려주기 위하여 宣仁烈·柳能에게 특별히 부탁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崔沆이 죽게 되자 家奴 출신의 崔良伯이 崔誼가 정권을 계승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세우고, 門客 大將軍 崔瑛·蔡楨·柳能 등에게 夜別抄·神義軍·書房·都房을 거느리고 崔誼를 옹위하도록 도왔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짐작하자면 崔沆 당시에 家奴 출신으로 구성된 家兵 집단의 영향력이 崔氏家の 다른 어떤 사적인 관계에 있던 군사 집단보다 컸다고 하겠다.³²⁾

한편 I에 따르면 都房은 36番으로 나뉘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都房이 36番으로 된 것은 崔沆 때의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都房이 崔沆 때에 36番으로 되었다는 것은 두가지 방향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종래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番의 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都房 구성원의 수도 증가한 것이며, 그 세력 역시 강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³³⁾ 두번째는 都房의 인원수는 증가하지 않은 채 番의 회수만 늘린 것으로 都房의 구성원이 崔氏家에 番을 드는 회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며 그만큼 崔氏家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⁴⁾ 전자의 해석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崔沆 집권 당시에 都房의 역할이 증대하였으며, 그 구성원도 상당수 충원되었어야만 한다. 그러나 襲權 당시에 都房 세력에

32) 이와 관련하여 洪承基, 앞의 논문, pp. 292~293을 참고하라.

33) 종래의 해석은 대개 都房 36番을 都房의 세력 확대로 풀이하고 있다(金庫基, 앞의 논문, p. 231, 旗田巍, 〈高麗의 武人崔氏의 家兵〉, p. 6).

34) 都房의 番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또한 都房의 구성원이 그들이 가진 중앙 임무에 충실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즉 都房이 36番이 됨으로써, 그 구성원은 1番이 교대로 하루씩 崔氏家에 숙직하게 되어 나머지 시간에는 중앙 정부의 임무를 담당했을 것이다.

의해 은연중에 반대를 받았던 崔沆이 都房의 세력과 그 구성원 수를 확대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家奴 출신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家兵이 崔氏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가는 동안에 都房의 세력이 동시에 성장해 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후자의 해석이 더욱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겨진다.

崔氏武人政權의 말기에 와서는 都房의 역할이 崔氏家와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미약한 정도에 머물렀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崔氏政權이 몰락한 이후에도 武人政權이 막을 내리기까지 都房은 계속 존재했다. 다만 崔氏政權몰락 이후 都房의 성격은 약간 변화한 것 같다.

- J ① 王御康安殿 百官陳賀如新即位 禮畢出 朴松庇·金仁俊又率諸功臣·左·右別抄·神義軍·都房等 入殿庭 羅拜呼萬歲 發崔誼家貲 分給有差 (高麗史節要 17 高宗 45 年 3 月)
- ② 幸王輪寺 都房·夜別抄·神義軍·書房殿前擁駕而行 觀者感泣 (高麗史節要 17 高宗 45 年 4 月)
- ③ 林衍移入金俊舊第 涓遣都房六番 衛之 (高麗史節要 18 元宗 10 年 7 月)

J ②와 ③을 보면 都房이 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J ①과 ③에서 보이듯이 都房의 사적인 성격은 계속되었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왕의 명령을 따르고, 또한 왕을 시위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都房이 무인 집권자와의 사적인 관계는 지속되었지만, 중앙 정부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여지고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崔氏武人政權이 몰락한 이후 都房은 다시 6番으로 운영되었지만(J ③), 武人 집권자가 거느린 일반 군사 집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崔忠獻에 의해 설립된 都房은 崔誼의 襲權 때를 제외하고는 崔氏政權의 제승에 반대의 입장을 취한 셈이다. 그것은 都房이 崔氏家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 성립된 사적 기구이면서도, 그 구성원이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와의 연결을 원하는 통로로서 都房을 이용한 데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IV. 맺음말

이 글을 통하여 필자는 崔氏武人政權 시대에 崔氏家의 사적 기구로 존재한 都房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崔忠獻이 都房을 설치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崔忠獻은 그가 처음 집권할 무렵에 壯士라 표현된 군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들은 崔忠獻의 집권 초기에 崔忠獻의 측근으로 하나의 집단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崔忠獻의 정권이 안정되어 가면서 그들은 崔忠獻의 門客이 되었으며, 이 門客으로 형성된 집단이 조직화되어 나타난 것이 都房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都房은 崔忠獻의 門客들이 崔氏家와의 사적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구였다고 하겠다.

都房을 통해 조직화된 門客은 都房의 구성원이면서 대개 중앙의 관직을 갖거나 중앙군에 소속되었다. 하층부를 이룬 일반 군인은 都房의 상층부에 존재한 무인들의 명령에 따라 都房 내에서 활동하기도 하였지만 중앙군으로서 중앙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都房의 상층부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都房 소속원이 중앙 정부와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인하여 都房의 구조는 때로 취약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都房의 구조상에 문제점이 있었지만, 崔忠獻은 都房을 설치함으로써 중앙 정계에 그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崔氏家의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崔忠獻이 설치한 都房은 崔氏家 집권자의 계승에 대체로 반대의 입장을 표방했다. 이것은 都房 구성원의 이해가 崔氏家와 언제나 일치하지 않았으며, 崔氏家에 대를 이어 충성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都房의 태도는 崔氏家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경제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都房이 崔氏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게 되었으며, 그 역할도 사소한 방향으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崔氏家는 중앙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주는 통로로서 都房을 계속 필요로 했으며, 따라서 都房을 없애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후 武人政權이 끝나기까지 都房은 사적 군사 집단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